

# Harper's BAZAAR

www.imagazinekorea.com  
값 6,000원



김희애, 발레스트라의 뮤즈가 되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위대한 삶  
지성, 그 강인함의 조건  
이준기와 남상미의 뜨거운 한때

## The Portrait of Majesty

셀린의 수장, 피비 파일로와의 인터뷰  
베르사유와 이우환의 '대화'

# SUMMER CITY GUIDE

예술가들이 사랑한 프로방스와 세상의 끝 포르투갈,  
격조 있는 흥취를 간직한 광주부터 평화로운 일상을 품은 제주까지,  
<바자>가 포착한 여름 도시 곳곳의 풍경

## Smart Beauty

케이트 업튼의 뷰티 시크릿  
여름을 위한 클렌저와 오일  
트래블 파우치 릴레이  
불면증을 위한 수면의 법칙  
건강 주스 전도사들

## LOVE SUMMER From Bikini To Tunic

# Harper's BAZAAR TALK

## 침묵과 의심이 필요한 순간

예술가가 태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다면  
로니 혼을 기억하자. 가장 쓸모없는 예술이  
가장 존재 가치가 높다는 역설을 자신의 방식대로  
정의해온 이 순진무구한 예술가 말이다.







K2관의 'You are the Weather, Part 2' 설치 전경

미국의 예술가 로니 혼과의 인터뷰는 그 어떤 유명인과의 그것보다 어려웠다. 로니 혼이 불친절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푸른 눈과 창백한 얼굴, 커트머리의 그녀와 대화를 나누자니, 왜 절친 헬무트 랭이 “로니 혼은 직선적이고, 재치 있고, 경이로울 정도로 사랑스럽다”고 표현했는지 알 것 같았다. (요절한 작가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와 도널드 주드, 더글라스 고든, 유희진 텔러와도 우정을 나누었다.) 어쨌든 그녀에게 “작품을 설명해주시오”란 질문이 금기라는 걸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다. 지난 2009년 테이트 모던에서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 등이 모여 대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작품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이들에게 선문답 같은 대답으로 일관하는 통에 분위기는 묘해졌고, 진행자는 별다른 연결 질문을 찾지 못한 채 허둥지둥 다음으로 넘어가야 했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 로니 혼의 간결하기 이를 데 없는 작품을 보고 있자면 머릿속은 꽤 복잡해진다. 이를테면 다섯 덩어리의 유리 주조 작품은 빛과 함께 켜지고 바뀌고, 작품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보느냐에 따라 형태도 달리 보인다. 어떤 작품을 대면하면 자동반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혹은 왜 만들었지?’ 하는 의구심이 일다. 하지만 로니 혼의 전시장에는 그런 부질없는 질문은 접어넣으라는 식의 압도적인 뉘앙스가 있다. 여기에는 난감한 제목들이 한몫한다. ‘개들을 겁먹게 한 햇빛의 변화들’ 하나의 색깔로 변질된 무지개 ‘유성우 속에서 잠들었던 것에 대한 슬픔의 감각’ ‘여자들만 거처했던 주거지 안의 달리 설명할 길 없는 불’ 등. 그야말로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제목들이 삼청동의 나른한 햇빛을 품은 전시장에서 고즈넉하게 찰랑거렸다. 언젠가 휘트니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 돈나 드 살보(Donna De Salvo)로 하여금 “로니 혼은 천재다”라고 단언하게 한 바로 그 작품. 육중한 물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유리, 즉 딱딱한 고체로 보여진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액체다. 하지만 로니 혼이 이 대목에서 질문하는 건 이것이 고체일까, 액체일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당신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글썽, 과연 그럴까?”에 가까울 것이다.

이 모호한 자문자답에 대한 힌트는 로니 혼이 현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센터 큐레이터 린 쿡(Lynne Cooke)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얻을 수 있다. ‘난 모든 작품이 각각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시장에 들어서서 경험을 하고 나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비슷한 유형의 작품이나 미래의 작품, 혹은 그것의 변주들에 관한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만약 관람객의 경험 자체가 작품의 이해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개별적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누구든 분명한 물리적 실체가 제시되면 눈앞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많은 적든 간에 어떻게든 대처해야만 한다. 지식은 묘한 것이라 경험을 방해하곤 한다. 부분적이거나 과도한 것보다는 아예 없는 편이 더 낫다.’ (2007년 국제갤러리 도록 중) 작품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마도 로니 혼에게 ‘자유’ 혹은 ‘독립’이지 않았을까? 그녀의 작품은 관습에서도 자유롭다. 공공연하게 자신의 뮤즈이자 ‘엘 도라도’라고 밝힌 아이슬란드에서 몇 년 머물면서 사진을 찍어 책을 내기도 하고, 에필리 디킨스의 시구를 유리에 새긴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며, 박제된 새의 머리 사진을 찍기도 하고, 나르시시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기 포트레이트를 작품에 활용하기도 한다. 그나마 대규모 작품으로서는 아이슬란드에 지은 ‘라이브러리 오브 워터’가 있는데, 24개의 방에서 언어온 얼음으로 만든 유리 기둥이 서 있다. 이밖에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인 ‘You are the weather, Part 2’는 그중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되어온 소위 히트작이다. 아이슬란드의 수영장에 얼굴만 내밀고 있는 여자의 얼굴 1백여 장이 펼쳐진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이 여자의 얼굴은 햇살, 바람, 기온의 정도를 표정으로 반영하듯 아주 미묘하게 달라 언뜻 보서는 차이를 거의 감지할 수가 없다. 세상의 보이지 않는 것을 작품으로 실재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보이지 않되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이 가진 고유한 힘을 기록하는 셈이다. 더불어 1백 개 여자들의 얼굴이 관람객을 지켜보는 식이니 관람객이 곧 날씨이기도 하고, 1백 명의 여자에 둘러 싸인 관음중적 상황에 처한 또 한 명의 모델이기도 하는 등 이곳에는 흥미로운 역할들이 가득하다. “만약 어떤 것이 어떤 기간 동안 당신 머릿속을 간질거리고 있다면 그걸 갖고 무언가를 해야만 해요. 내면에 깔린 것을 알아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란 것이 결국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어쩌면 사소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유들이 시간과 기억, 지각 등 인 간계를 이루는 요소들을 자각하게 하고, 결국은 인간을 인간으로 살아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수십 년째 반문해오고 있는 작가. 끊임없이 굴러가는 세상이라는 덩어리에서 독립적으로 ‘감각’하고자 하는 사람. 인터뷰가 끝난 후 개념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무섭도록 직관적인 이 예술가의 정체가 (신뢰는 곧 의심이라는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이번 K3관의 유리 작품에도 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을 붙여두었어. 보통은 제목이 작품을 대변하는데, 이 독특한 문학적 감수성을 한국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대됩니다. 제목으로 내 작품을 설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제목은 작품의 문고리와 같다고나 할까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인용문을 수집했어요. 문학, 시에서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한번은 라디오에서 팔레스타인 여자아이에 대한 기사를 들었어요. 아버지에 의해 감금당하며 살던 그녀가 풀려나며 말했지요. “나는 공기가 두려웠다, 두려웠다, 두려웠다.” 나는 생각했어요. 공기가 두려워? 저 작품들에 붙여진 제목들은 1980년대에 작고한 홀리스 프렘튼이라는 영화감독의 노트에서 따온 문장이예요. 더 관심을 쏟아서 보게 된다면 예바 가드너, 오드리 햅번의 대사에서도 아름답게 순간을 표현하는 인용문들을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유리 주조 작품들을 보면 테이트 모던 전시 때 큐레이터가 왜 낮에 전시를 보러 오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빛을 받아 각기 다른 색을 띠는 유리 덩어리들은 개개의 작품이 아니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작품의 색과 형태를 통해서 시간을 짐작할 수 있다고나 할까요. 다섯 개의 유리 덩어리가 한 덩어리의 작품이 되어 나오는데, 나는 이것 일종의 풍경, 랜드스케이프(Landscape)라고 생각해요. 경험적으로 관객이 개별적인 물체의 복합성, 공간들 간의 관계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나는 이런 오브젝트를 작업하면서 기술이라는 옵션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필요 이상의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평소 나의 지론이예요. 이 작업이 오래 지속된 이유도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이런 사이클은 이제 끝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다른 단계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작감이 들어요. 작업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때, 그것을 마쳤다는 걸 완전히 인식하게 될 때가 바로 그 끝의 단계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 부분들이 하나로 되고 다음 단계로 점프해, 내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가는 거랄까요. 세상을 거대한 덩어리째 봐서는 느낄 수 없는 미세한 틈새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전시 주제인 갈음과 다름의 본질을 구분하는 건 시간적으로는 찰나지만, 시간을 초월하면 매우 긴 순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그런 감각을 버리고 산다는 건 당신에게나 우리에게나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닐까요? 나는 작업을 통해서 실제와 실제의 복잡성을 다루고 있어요. 순간에 미세한 변화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는 평생을 통해 제게 무척 중요한 작업이자 언어였어요. 저도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소통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위축되어 그런지 내 자신의 언어를 찾는 것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이슈인 지구온난화 같은 것도 제 방식으로 정의하려면 실제에서 멀어진다는 얘기고, 디지털 역시 물리적인 의미의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독자들도 매일, 매주, 매월 끊임없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화할 수 있는 걸 원하고 있겠지만, 내 건 내가 속해 있었거나 경험한 세상, 혹은 지난 50~60년 동안의 세계가 아니예요. 그나마 이 작품들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대로 있던 상황에서 포착한 것들이예요. 그래서 지금 더 와닿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굳이 전시장을 찾는 이유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감각을 사용하고, 하지 않던 생각을 하기 위해서죠. 안 쓰던 근육을 쓰면 몸살이 나듯 두통과 떨림이 나타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당신 작품을 보여 했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상당히 흥미롭군요. 이번에 전시 작업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거든요. 요즘은 시간이라는 개념, 경험, 자연까지도 모두 끊임없이 초 단위로 쪼개져 소비되고 있어요. 이런 세

“결국 아름다움이란 내게는 사유하는 길의 입구일 뿐이고, 전제 갈 길을 갑니다. 아름다운 것 또는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강요하는 것과 그 다음 단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오늘날의 실제 세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민하면서요.”



사진/Anju Jeong

상에서 내 언어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을지가 날 지배하는 관심사예요. 덧붙인다면, 오늘날 많은 작품들이 예술을 표준화하고 있어요. 설명적이고, 가르치려고 하죠. 창의적, 본능적인 에너지는 세상과 타협했고, 물질에 압도되어버리고 말았죠. 아티스트가 만드는 건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분리되어야 해요. 예술이란 여전히 경험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당신 작품은 왜 예술이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걸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요.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을 의심한다는 것,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오! 맞아요. 그 의구심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위한 시작이예요. 난 지난 20년 동안 의심하면서 살았어요. 이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도 일종의 의구심이죠. 물론 이 다음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두렵기도 하죠, 사실. 할 수 있을까, 뭘 할까... 농담 아니예요. 의도하지 않았을 텐데 작품들이 미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일단 문고리가 예쁘니 더 읽고 싶고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 거죠. 당신은 늘 “비주류 아티스트가 아니다”라고 말해왔어요. 비주류에 주는 경험보다 존재 자체의 경험에 몰두한다고요. 그런 당신에게 아름다운 작품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모호함을 만들어냅니다. 무언가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닫아버리죠. 그렇다면 무엇이 탐험을 강요하게 하는가입니다. 당신의 말에 공감해요. 이 매체, 재질, 재료의 패러독스는 매우 유혹적이에요. 이 작품의 패러독스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가면을 쓰고 다른 형태를 지니는 거예요. 우리는 고체가 아니라 광채가 차가운 액체예요. 가면과 가면 아래 감춰진 내용물이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이런 사유는 내게 다양한 방향을 열어줍니다. 결국 아름다움이란 내게는 그 길의 입구일 뿐이고, 전제 갈 길을 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 또는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강요하는 것과 그 다음 단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오늘날의 실제 세계에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물론 나도 답은 모릅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술의 어원은 바로 기술이다. 산업혁명 후 교회와 왕족들의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비로소 예술가들은 요청에 따라 ‘예술해주는’ 게 아니라 의지대로 ‘예술하기’ 시작한다. 예술이 지금처럼 예술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술가가 ‘자기목적성’(혹은 ‘자기충족성’)을 가지게 되면서부터라는 거다. 그런 면에서 로니 혼은 ‘개혁한 예술’과 가장 가까운 의미의 작업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문득 떠오른 건 딸아이의 손에 이끌려 간 실내놀이터에서였다. 옆자리의 아줌마는 자기 아들이 수영 천재라는 얘기를 한 시간째 하고 있었고, 딸아이는 30분이 멀다 하고 날 불러댔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곳에서 난 완벽히 고요할 수 있었다. 언젠가 테이트 모던의 디렉터 빈센트 토틀리(Vincente Todoli)도 이 순간을 맛보지 않았나 싶다. “로니 혼의 작업은 침묵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당신으로 하여금 세상에 직면하는 개인의 컨디션을 항상 일깨워준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고통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 작업과 관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연결선 없이도 말이다.” 로니 혼이 ‘Roni Horn = Yoon Hei Jeong’ 이라고 사인해준 까닭을 깨달으며 실내놀이터를 빠져나왔다. [1] 에디터/윤해정